

KRIVET Issue Brief

2013

28호

발행인 박영범 | 발행일 2013년 5월 30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자들의 취업 실태

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자들 중 24.6%가 지속적인 학문탐구 목적이 아닌 취업 관련 목적으로 진학
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들은 대졸 취업자들에 비해 월평균 10만원 더 적게 벌고, 비정규직 비율은 30.3%로 13.4%p 더 높음.
- 인문계열 졸업자들의 임금 손실은 69만원으로 가장 크고 비정규직 비율은 59.8%로 대졸취업자들보다 39.7%p 더 높음.
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들이 대졸자에 비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의 전공일치도가 더 높음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대학원 교육의 일반화와 실용지향성 심화

- 대졸 청년층의 취업난과 맞물려 대학원 진학자가 증가하는 양적 팽창과 실용지향적 교육 강화가 동시에 진행됨.
- 대학원의 양적 팽창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.
 - 청년층의 일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은 사회의 평균적인 인적자본 수준 증가라는 긍정적인 해석 가능
 - 반면, 대학원교육의 질적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학원생의 증가는 대학원 진학자들을 취업 실패자들의 도피처로 간주하여 이들의 일반적인 인적자본 수준을 대졸 취업자들보다 낮게 평가하는 오점(stigma)효과를 갖는다는 부정적 해석도 가능
-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면 대학원 교육비용의 증가라는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것임.

| 분석 자료

- 분석자료: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(GOMS) 2007년과 2008년 졸업자들의 1차년도와 3차년도 조사 자료
 -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(GOMS) 1차년도 조사는 대학 졸업 후 1년 6개월 혹은 2년 시점에서 이루어지고, 1차년도 조사 2년 뒤에 3차년도 조사가 수행됨.
- 분석 대상
 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자들의 진학 이유는 대학원 진학자 2,583명을 분석
 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들의 취업 현황은 3차년도에 취업상태인 대학원 졸업자 998명과 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취업 상태인 대졸자 12,421명을 비교
 - 취업현황은 3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대졸 취업자는 대학 졸업 후 3년 6개월 혹은 4년이 된 시점,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된 시점에서의 비교가 됨.



0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들의 취업 실태

계속적인 학문탐구보다 취업목적으로 대학원을 진학한 비율이 24.6%

-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라는 일반대학원 설립목적(고등교육법 제 29조의 2)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인 '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', '사회적 평판이 좋은 대학원에 가기 위해', '취업난 때문에', '학력 상승' 등의 이유로 대학원에 진학한 이들을 취업목적으로 분류하면 이들의 비율은 24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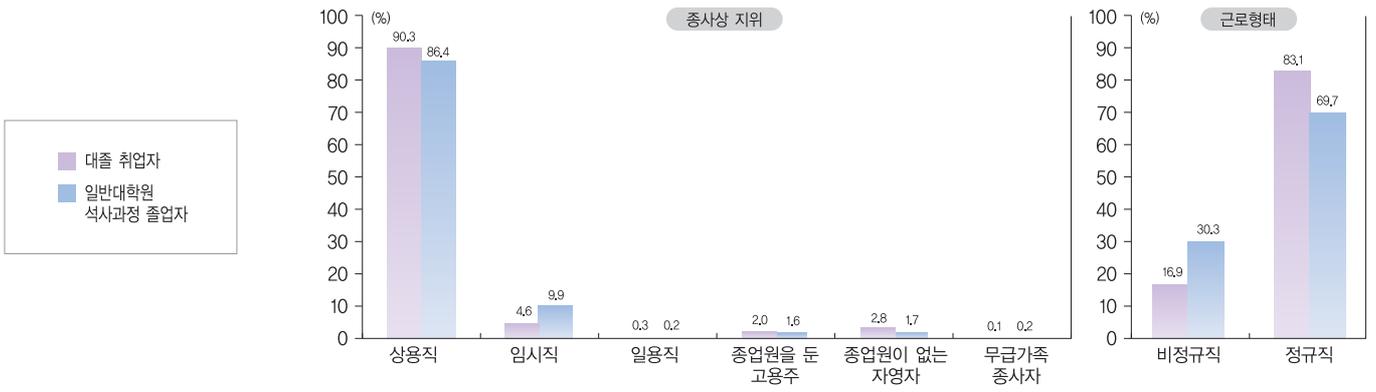
〈표 1〉 일반대학원 진학 이유

(단위: 명, %)

구분	인원수	비중	구분	인원수	비중
전공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	1,671	64.7	졸업 당시의 취업난 때문에	58	2.3
대학원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	382	14.8	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의 학력 상승	47	1.8
전공 영역을 바꾸어 계속 공부	276	10.7	주변(부모/친지 등)의 권유	25	1.0
졸업한 대학보다 사회적 평판이 좋은 대학원에 가기 위해	64	2.5	기타	60	2.3
계				2,583	100.0

대학원 졸업자들의 임시직,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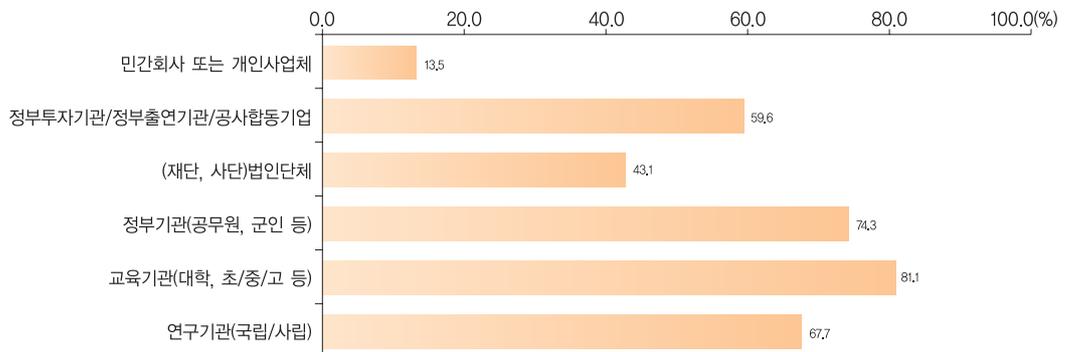
- 종사상 지위별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는 86.4%가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있어 대졸 취업자 90.3%보다 3.9%p 낮음.
 - 반면 임시직의 비율은 9.9%로 대졸 취업자(4.6%)보다 5.3%p 높음.
- 비정규직 비율은 일반대학원 졸업자들이 30.3%로 대졸 취업자(16.9%)보다 13.4%p 더 높음.



[그림 1] 종사상 지위와 근로형태

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대학원 졸업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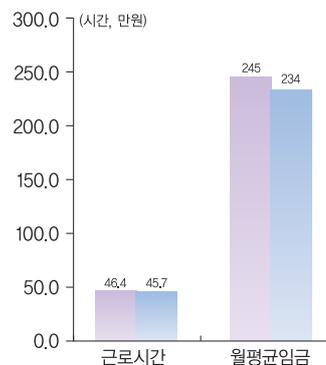
- 정부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정부투자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사 등에서는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.
 - 석사과정 졸업자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을 시사



[그림 2]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들의 사업체 형태별 비정규직 비율

대학원 졸업자들의 월평균임금은 대졸자보다 10만원 낮음.

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취업자의 월평균임금은 234만원(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)으로 대졸 취업자(245만원)보다 10만원 정도 낮은 수준
 - 이는 기업체가 대학원 교육보다는 직장에서의 경력을 가치있게 평가함을 시사
 - 고용주 입장에서 우수한 석사졸업생을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수한 석사 졸업생들까지도 취업에 실패한 도피성 대학원 진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낮게 평가하는 오점효과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음. 그러나 이러한 오점효과는 경력과 더불어 줄어들게 될 것임. 따라서 노동시장 경력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.



[그림 3] 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

주 | 월평균임금은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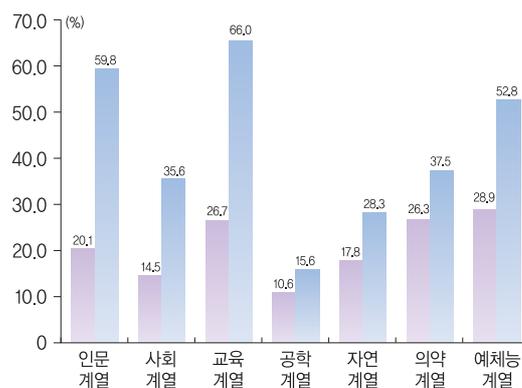
인문계열 대학원 졸업자들의 임금 손실이 가장 크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.

- 전공계열별 월평균임금은 인문계열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들 161만원, 대졸 취업자 230만원으로 대학원 졸업자들이 69만원 더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남.
 - 다른 계열에서도 대학원 졸업자가 대졸 취업자보다 임금수준이 낮는데,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은 각각 2만원과 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작음.
- 전공계열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, 인문, 교육, 예체능계열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음.
 - 대학원 졸업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인문계열 59.8%, 교육 66.0%, 예체능 52.8%로 대졸자에 비해 각각 39.7%p, 39.3%p, 23.9%p가 높음.

주 |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임



[그림 4] 전공계열별 월평균임금



[그림 5] 전공계열별 비정규직 비중

대학원 졸업자들은 대졸자들보다 직장과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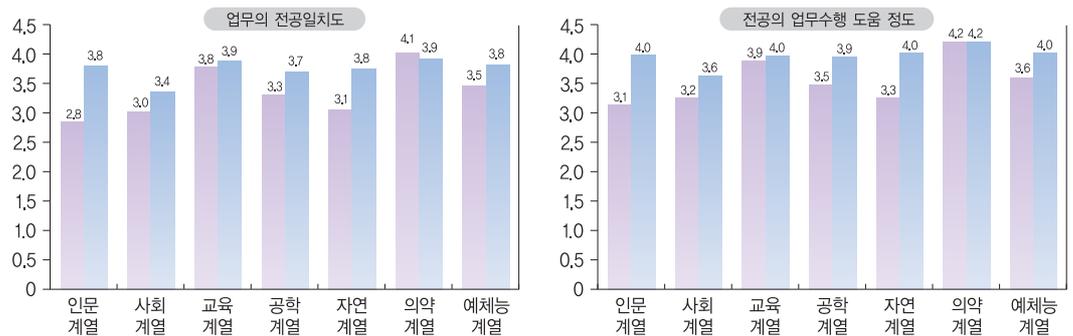
- 5점 척도로 평가한 현 직장 만족도의 경우 임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들은 3.30점, 대졸 취업자들은 3.28점으로 큰 차이 없음.
- 반면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대학원 졸업자 3.64점, 대졸자 3.76점으로 대졸 취업자가 0.12점 높아 비정규직 취업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,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3.77점으로 대졸 취업자 3.62점보다 0.15점 높고,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해서는 3.76점으로 대졸자 3.68점 보다 0.08점 높았음.
- 전반적인 현 직장 만족도는 3.65점,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는 3.74점으로 각각 대졸 취업자 3.58점, 3.62보다 각각 0.07점, 0.12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 6] 현 직장 만족도(5점 척도)

대학원 졸업자들이 업무가 전공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전공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음.

- 의약계열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업무의 전공일치도는 대학원 졸업자들이 높음.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일치도는 3.8점이나 대졸자의 전공일치도는 2.8점에 불과
- 전공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 또한 의약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대졸 취업자들보다 높음. 인문계열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는 4.0점인 반면 대졸자는 3.1점에 그침.



[그림 7] 전공계열별 업무의 전공일치도와 전공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(5점 척도)

03 시사점

- 대학원 교육이 월평균임금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대학 졸업 후 직장 경력을 쌓는 것보다 손해인 것으로 나타남.
 - 기업체가 직장에서의 경력을 대학원에서 학습하는 것보다 가치 있게 평가함을 의미
 - 우수한 대학원 졸업인력들이 도피성 대학원 진학자들에 의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저평가되는 오점 효과로 인해 임금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. 그러나 이는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여겨짐.
-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고려하면, 취업 스펙을 쌓을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
- 공공부문에서 대학원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학원 졸업 취업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.
- 대학원생 수는 2012년도에 329,544명으로 2000년 229,437명에서 1.5배 정도로 팽창하여 대학원 과잉 진학의 우려가 제기됨. 양적 팽창만이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한 뒷받침과 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지도가 필요함.

양 정 승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)